

# 봉침요법 강좌(蜂針療法講座)



회장 고상기(高相基)  
한국봉료보건연구회  
국제봉료보건학술연구회 부회장

## 제4장 의료분야(醫療分野)에서의 봉독(蜂毒)의 응용(應用)

100여년 이래로 봉독은 일종의 천연적인 항생 물질로서 의사, 약사, 화학자, 약리학자들과 아울러 관련분야 전문가들에 의해 임상에서의 응용과 실험적인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현재까지 발표된 문헌을 보면 봉독이 인류의 여러 질병들에 대해서 충분히 예방 및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는데, 다만 의료분야에서 봉독이 지니고 있는 잠재적인 허용가치는 아직도 많은 연구가 요망되고 있다.

### 제1절 봉독(蜂毒)의 임상효능(臨床效能)

7. 봉침, 봉독치료의 적응증(適應症)과 금기증(禁忌症)  
(2) 날로 줄어드는 봉독의 금기영역(禁忌領域)  
사람들은 봉독요법의 금기증에 대해 각기 서로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앞에서 제시한 금기증 외에도 1958년 구소련의 자이체프 교수 등의 연구에 의하면 결핵질환의 모든 유형, 당뇨병, 췌장질환, 종양,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병변 등이 모두 봉독치료를 금해야 할 질환들

이라고 하였다.

1959년 방주(房柱)는 침윤형 폐결핵(浸潤型肺結核)이 합병증으로 나타난 류마티스성 관절염 환자 2명에 대해 폐결핵치료제를 사용함과 동시에 봉독치료를 시행한 결과, 임상증상과 X선검사에 있어 모두 결핵의 악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방주(房柱)가 이 두 경우의 활동성폐결핵 환자에 대해 봉독치료를 시행한 것은 자신이 그 당시에 침윤형결핵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먼저 실험적인 치료를 시행한 것이었고, 또한 문헌기록에도 피부결핵을 치료하는 데 있어 봉독이 유효하다는 기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1958년 로바체프(S. V. Lobachev) 등은 5명의 암 환자에 대해 봉독치료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봉독치료를 받은 환자의 평균생존일수가 대조군과 비교하여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 후 봉독을 암 환자에게 사용할 경우의 진통효과가 보편적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봉독의 복사방호작용(輻射防護作用)도 또한 암 환자들이

봉침요법 (蜂針療法)

방사선요법으로 치료받을 때 봉독요법을 같이 시술하는 근거가 되었다.

1996년 중국의 제 6차 전국봉료회의에서 당금현(唐金賢) 등은 임상에서 봉침과 봉교환(蜂膠丸)이라는 프로플라스 제품을 이용하여 식도암, 분문암(噴門癌) 환자 32명(남 20, 여 12)을 치료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환자들의 연령은 40~72세로서 평균연령은 56세였다. 치료 결과 5년 이상 생존하면서 치료된 환자가 6명으로서 치유율은 18.75%였고, 생존기간이 3~4년으로 다소 치료효과가 나타난 환자가 15명으로서 그 비율이 46.87%였으며, 1년 반에서 3년 동안 생존하면서 약간의 호전을 보인 예가 7명으로서, 전체적으로 총유효율은 87.5%에 달했다. 또한 봉침요법은 양기가 허한 유형의 음부궤양(陰部潰瘍)에도 치료효과가 뛰어난데, 진통작용과 함께 종양을 줄어든다는 효능이 있으며, 아울러 탐식세포의 탐식기능을 높임으로써 식도암, 분문암(噴門癌) 환자들이 음식을 넘기지 못하는 등의 증상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다. 중의학에서는 식도암, 분문암(噴門癌)과 같은 질환의 변증에 있어 간울기체(肝鬱氣滯), 비허담습(脾虛痰濕)의 유형에는 전중, 내관(內關), 하완(下腕), 천돌(天突), 족삼리(足三里), 비유(脾俞), 장문(章門) 등의 혈위를 취한다. 봉교환(蜂膠丸)은 봉교(蜂膠)와 함께 아출(莖朮), 위령선(威靈仙), 백화사설초(白花蛇舌草), 반지련(半枝蓮), 오공(蜈蚣), 단삼(丹參), 천궁(川芎), 도인(桃仁) 등의 약물을 배합한 것이다. (『전국봉료회간』, 01A06J/1996, p76)

어떤 연구자는 한 지역의 양봉업자들의 발암률이 일반인들에 비해 낮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봉독이 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여겼는데,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은 단지 봉독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양봉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 직업을 통해 얻는 여러 면의 작용이 종합된 결

과라고 볼 수 있다. 방주(房柱)는 봉독이 암을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여겼고, 봉독이 인체의 암 조직에 작용하는 기전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아 진일보한 연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위위 등은 1993년에 정제된 봉독을 응용하여 당뇨병의 외주신경병변 20례를 치료하여 만족할 만한 치료효과를 얻었는데, 봉독을 이용한 치료 전에 기타 약물의 사용을 한 주 이상 정지하였고, 치료과정 중에는 혈당강하약물의 종류를 바꾸지 않았으며, 봉독의 제량은 혈당의 파동에 근거하여 소폭의 조정을 가하였다. 피부시험에서 음성으로 판명된 후 매일 정제된 봉독 2ml를 근육주사 하였다. 치료 전과 치료 후 2주, 4주, 8주 때의 공복혈당과 글루코스화된 헤모글로빈(HbA1C), 정중신경(正中神經)과 비총신경의 전도속도(MNCV) 및 신경병변적분 등의 지표를 측정하였다. 이 경우 병례에서의 총유효율은 90%였고, 그 가운데 치료효과가 비교적 양호한 치료효과를 보인 경우는 65%였다. 그 가운데 비교적 양호한 치료효과를 보인 경우는 83.3%였다. 치료효과는 주로 임상증상의 완화 또는 소실과 건반사(腱反射)의 개선이었다. 또한 분석결과를 볼 때 외주신경병변의 이환기간이 1년이 넘지 않은 경우가 1년을 넘은 경우보다 치료효과가 매우 뛰어났다.

왕력(王力) 등은 1997년에 봉독주사액으로 당뇨병에 말초신경염이 합병증으로 나타난 환자 30명을 치료했는데, 이 환자들의 평균연령은 51세였고, 그 증상이 동통이 위주인 경우가 14명, 마비가 위주인 경우가 16명이었다. 하루 한 차례 봉독주사액을 1mg씩 근육주사 하였는데, 혈당은 인슐린 또는 경구혈당강하제를 통해 모두 비교적 이상적인 수준으로 유지되어 치료 전후의 혈당수준은 비교적 안정적

으로 나타났다. 치료기간은 15~90일로서 평균 35일이었다. 그 증상이 개선된 정도를 볼 때 치료효과가 약했던 경우는 모두 3례로서, 그 가운데 3급 동통을 수반한 경우가 2례, 3급 마비를 수반한 경우가 1례였다. 치료효과가 중등도로 나타난 경우는 모두 5례로서, 그 가운데 2급 마비가 3례, 2급 동통이 2례였다. 치료효과가 비교적 양호했던 경우는 모두 10례인데, 그 가운데 2급 마비가 2례, 3급 마비가 1례, 3급 동통이 1례, 2급 동통이 4례, 1급 동통이 2례였다. 치료효과가 매우 뛰어났던 경우는 모두 12례로서, 1급 동통이 3례, 1급 마비가 9례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치료효과가 비교적 양호했거나 매우 뛰어났던 경우는 전체의 73.3%를 차지하며, 또한 간장, 신장, 심장의 손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단지 주사한 부위에 정도의 소양감, 동통 등의 부작용만이 있었다.

일찍이 봉독치료가 금기시되었던 당뇨병, 만성간염, 간경화 등과 같은 질환은 이미 봉침요법의 적용범위에 들어와 있다. 봉독에 대해 과민반응을 보이는 경우는 정상적인 제량의 봉독을 투여할 수는 없지만, 그 용량을 줄여 사용함으로써 먼저 봉독에 대한 과민반응을 제어한다면 봉독요법에 대한 금기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러므로 봉독치료를 시행하느냐의 여부는 반드시 의사가 치료대상에 대한 전면적인 고려를 거친 후 병변의 경중에 따른 정확한 시술방법을 결정해야만 한다.

### (3) 간경화(肝硬化)에 대한 봉침치료

20세기 60년대 후반부터 중국과 일본, 한국에서는 만성간염과 간경화 환자에 대해 봉침요법을 시술하는 것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왔는데, 이에 대해 여러 나라 학자들의 동물실험연구와 계통적인 임상관찰이 진행되어 왔으며, 그 결과 봉독은 만성 B형간염과 간경

화에 뚜렷한 치료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유문청(劉文淸) 등은 1992년 봉독으로 만성 B형간염 환자 20명, 간염 후 간경화 환자 12명을 치료한 바 있는데, 별로 하여금 경락을 따라 침을 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 선택된 대표적인 경혈은 다음과 같다.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 : 간유(肝俞), 담유(膽俞), 비유(脾俞), 위유(胃俞), 신유(腎俞), 방광유(膀胱俞)

족厥음간경(足厥陰肝經) : 기문(期門)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 : 족삼리(足三里)

임맥(任脈) : 중완(中腕)

수양명대장경(手陽明大腸經) : 합곡(合谷)

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 : 양릉천(陽陵泉)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 : 음릉천(陰陵泉)

환자들이 봉침에 대해 나타내는 반응의 경중을 참작하여 매일 또는 이틀에 한 차례 시술하거나, 또는 3~5일에 한 차례 시술하여 10회 시술하는 것을 한 단위의 치료과정으로 하였다. 이렇게 하여 32명의 환자 가운데 한 단위의 치료과정을 시술받은 환자가 2명, 2단위의 치료과정을 시술받은 환자가 6명, 3단위의 치료과정을 시술받은 환자가 10명, 4단위의 치료과정을 시술받은 환자가 8명, 5단위의 치료과정을 시술받은 환자가 6명이었다. 봉침을 시술하는 것은 2마리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늘려가서 환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까지 이르게 하여 일반적으로 매 차례 2~24마리를 사용했다. 치료 후 환자의 증상과 신체상태가 개선된 정도는 표 30에 나타나 있으며, 실험적 검사를 통해 나타난 개선상황은 표 31에 나타나 있다.

유문청(劉文淸) 등은 봉독이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어혈을 풀고 간의 미세순환을 개선시킴

표 30 간 질환 환자의 치료 후 증상, 신체상태의 개선정도(유효/불량)

	염유 (厭油)	납차 (納差)	복창 (腹脹)	핍력 (乏力)	간부위 통증	간 외 증상	황달	출혈점	지주상 혈관종	간장 (肝掌)	어혈반	간종대	비장 종대	복수	하지 부종
만성간염	14/20	14/20	16/20	18/19	15/18	10/11	8/12	0/1				8/11	1/2		
간경화	8/10	8/10	10/12	8/10	6/10	4/6	5/8	0/10	0/12	0/12	2/5		5/11	8/8	8/8

표 31 간 질환 환자 치료 후 실험실 검사결과(유효/불량)

	빌리루빈	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	백단백 구단백	응혈효소 원시간	E-rosette	임파세포 전화	17- ketosteroid	17- hydroxyster oid	ketone aldehyde	cortico steroid	식도 바름 즉	문정맥 확장
만성간염	8/12	16/20	4/8	10/18	9/12	8/12						
간경화	5/8	3/3	8/12	8/10	5/11	5/11	4/6	4/6	5/5	4/6	4/12	4/12


으로써 간섬유화의 진전을 막고 문맥압을 낮추는 작용을 한다고 여겼다. 간경화 환자 12명은 문맥압이 높았고 응혈효소원(凝血酵素元) 시간이 연장되었었는데, 치료 후 생화학적 검사와 초음파 검사, 상부소화도조영술 등의 검사결과를 통해 볼 때 모두 호전된 상태를 보였다. 봉독의 소염작용과 뇌하수체-부신 계통을 흥분시키는 작용은 면역기능과 케톤 알데하이드(ketone aldehyde)의 분비에 대한 조절작용을 발휘하는데, 이로 인해 이노, 복수와 부종의 완화 등의 종합적인 치료효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 결과 치료결과가 매우 좋았던 경우가 6명, 다소 호전된 경우가 1명이었다. 1993년 제 2차 국제봉료대회에서 정지현(丁志賢) 등은 간경화복수로 인해 문맥압이 상승된 환자들에 대해 봉독주사를 통해 양호한 치료효과를 얻은 경험을 발표하였다. 1997년 일본에서 열린 제 4차 국제봉료대회에서 필자 고상기(高相基)가 만성간경화 환자 18명을 치료하여 그 가운데 환자가 5명(28%), 다소 호전된 환자가 7명(39%), 치료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환자가 6명(33%)이라고 발표하였다. 간경화 환자들이 봉침치료를 받을 때에는 매일 로dif젤리 40g, 프로폴리스 10ml, 화분(花粉) 20g을 모두 세 차례로 나누어 복용

하도록 하였다. 봉침치료는 하루걸러 한 차례 실시하였고, 치료효과를 얻은 환자들은 치료한지 3개월이 되어서부터 호전되기 시작하여 4~5개월부터는 발열이 사라지고 황달, 부종, 복수 등의 증상도 점차 사라졌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식도정맥이 확장된 환자들은 그 치료효과가 비교적 좋지 못했다. 18명의 환자 가운데 5명은 봉침요법으로 8~18개월 동안 치료받아 치유되었고, 치료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6명의 환자는 모두 치료 후 6~12개월 내에 사망했다.

2001년에 열린 제 6차 전국봉료회의(한국 대구시)에서 노강(盧剛)은 봉침과 봉산품을 이용하여 간염 후 간경화 환자 46명을 치료한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 환자들 가운데 대상기(代償期)에 있었던 환자가 18명, 대상기(代償期)를 넘어선 환자가 28명이었다. 봉침으로 곡지(曲池), 대추(大椎), 족삼리(足三里), 삼음교(三陰交), 기문(期門), 장문(章門), 비유(脾俞), 간유(肝俞), 신유(腎俞), 아시혈(阿是穴) 및 간 주위의 부위에 자침하고, 아울러 화분(花粉), 로얄젤리, 프로폴리스를 복용하도록 하였는데, 그 결과 3~6개월의 치료과정을 거쳐 치유된 경우가 4명(8.7%), 현저한 치료효과를 보인 경우가 26명(56.5%), 다소 치료효

과가 나타난 경우가 6명(13%), 치료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10명(21.7%)로서 총유효율이 78.2%에 달했다.

역시 2001년 한국에서 열린 제 6차 국제봉료보건의대회에서 왕강(王强) 등은 봉침과 함께 봉산품제제(로얄젤리, 봉교교냥, 화분편)를 응용하여 만성 B형간염 환자 82명을 치료한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결과 증명된 바를 보면 봉료요법은 B형간염을 치료하는 데 있어 병독에 저항하고 면역기능을 조절하며 간의 손상을 보호하는 등의 양호한 치료효과를 발휘하는 종합적인 자연요법임이 밝혀졌다. 그 치료방법은 꿀벌을 이용하여 자침하는 것이었는데, 경락을 따라 장문(章門), 기문(期門), 담유(膽俞), 비유(脾俞), 신유(腎俞), 위유(胃俞), 격유(膈俞), 대추(大椎), 복고구(腹

股?), 전중 등의 경혈을 취하였다. 하루에 한 차례 시술하되 적응기, 치료기, 안정기를 거치면서 각각 15회 시술하여 모두 45회 시술하는 것을 한 단위의 치료과정으로 하였다. 시작할 때에는 한 차례에 3, 5, 7마리 또는 4, 6, 8마리 등으로 점차 벌의 수를 늘려가되, 만약 발열증상이 나타나면 벌의 수를 늘리지 않고, 발열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벌의 수를 늘려나가 한 차례에 150~180마리까지 사용하도록 했다. 치료기 동안 10~15회의 시술을 거쳐 안정기에 들어서면 매 차례 40~60마리의 벌을 사용하여 15회까지 시술하였고, 이 때 사용된 벌은 모두 3,000~3,500마리에 이르렀다. 

- 다음호에 계속 -

국내유일의 발효 화분떡의 원조

**떡**



**발효화분떡의 원조**

**기호성 · 영양 · 소화흡수 · 면역력 강화  
무병강군 육성의 확실한 보증**

육아에 필요한 각종 영양소가 아미노산째로 발효 숙성되어있어 봉유를 가량 분비하므로 로얄제리 채취시나 여왕벌 양성시도 좋습니다.

※ 사용해 보신 분은 다른 것을 찾지 않습니다.

● 발효화분 첨가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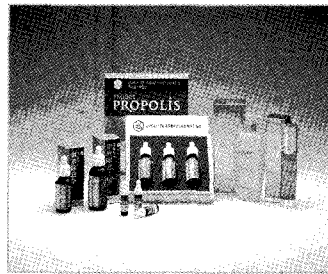
수입화분과 1:1로 섞어 먹이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동산양봉원**

경남 밀양시 내2동 950-4.  
055-354-4454, 011-861-2375  
농협 815-12-205073 (예금주 권대하)

**무알콜 · 수용성 프로폴리스**



건강기능식품 제조  
가축용 사료첨가제

**국산 프로폴리스 다량수매  
(프로폴리스 OME생산 환영)**

신기술평가 벤처기업  
농림부지원, 농림기술개발사업자선정  
미국 FDA, 공장등록 및 품질안정성 통과  
식약청, 건강기능식품 벤처제조업 허가  
기업부설 "프로폴리스 연구소" 설립



대한민국 프로폴리스의 자존심

**서울프로폴리스(주)**

대전 유성구 덕진동 150 한국원자력연구소 B센터  
프로폴리스 수매 상담 서울(02)517-3651/공장 및 연구소(042)862-4888  
www.propolis365.com/propolis@probee.net